

**제목 Theme: 회개의 세례 A Baptism of Repentance**

**본문 Scripture: 마가복음 1:4-11 절**

4.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**John the Baptist appeared in the wilderness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**

5.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**And all the country of Judea was going out to him,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; and they were being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, confessing their sins.**

6.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**John was clothed with camel's hair and wore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, and his diet was locusts and wild honey**

7.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**And he was preaching, and saying, "After me One is coming who is mightier than I, and I am not fit to stoop down and untie the thong of His sandals.**

8.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"**I baptized you with water;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.**"

9.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**In those days Jesus came from Nazareth in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.**

10.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**Immediately coming up out of the water, He saw the heavens opening, and the Spirit like a dove descending upon Him;**

11.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**and a voice came out of the heavens: "You are My beloved Son, in You I am well-pleased."**

복음에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 앞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을 말해야 합니다.

본문이 있는 본장에서도 **1 절에 “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”**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음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이미 약 5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**“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니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.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청경을 평탄케 하라”**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.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풀이해보면 예수님 탄생 이전 약 500여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“내 사자(세례 요한)를 네(예수 그리스도) 앞에 보내노니 저가(세례 요한) 네(예수 그리스도) 길을

예비하리라”고 말하였고 이어서 **이사야 40 장 3 절**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인 “**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천경을 평탄케 하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관계로 태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태어나게 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. 인류를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**누가복음 1 장 5 절**에 “**유대 왕 해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**6 절**에 “**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죄가 없이 행하더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**7 절**에 “**엘리사벳이 임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**”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본 내용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남편 사가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.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의 능력으로 임태하게 되지만 세례 요한의 내용은 사가랴에게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내 엘리사벳의 육신적 한계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**8 절**에 “**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**”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 “**마침**”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예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에 “**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자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할 때에 사자인 “**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! 무서워하지 말라.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.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**”라고 알려 주셨습니다. 이 내용을 알려준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(**19 절**)이었습니다.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예전에 항상 아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 “**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**”의 내용에서 사가랴의 기도가 상달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처녀 마리아는 아기 탄생에 대하여 기도로 기다리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가랴는 평소에 대를 이을 제사장 자손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**누가복음 1:23 절**에 “**그(사가랴)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**”라고 한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**24 절**에 “**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

본문 **4 절**에 “**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**”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가 주로 “**광야**”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 **이사야 40 장 3 절**에 “**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**”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“**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**”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렇게 전파할 때 **5 절**에서 “**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**”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의

사역을 이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**6** 절에 있는 내용이 주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“**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때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**”라고 세례 요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세례 요한은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역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뒤에 오시는 메시야를 소개하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. 그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를 이용하면 누가복음 **16** 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어떤 부자처럼 편안한 시설에서 좋은 집과 좋은 옷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렇게 사역할 때 성령을 통해서 곧 오시는 메시야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**7**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. “**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**”라고 하시며 **8** 절에 “**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(메시야)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**”라고 전했습니다.

**9** 절에 “**그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**”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“**그 때에**”라는 말은 **누가복음 1** 장 **8** 절에 내용 “**때 마침**”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을 표시한 것입니다.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내용입니다. 그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야 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성령이 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(**요한복음 1:33-34** 절). 그리고 **마태복음 3** 장 **13** 절 이후에서는 “**이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(나사렛)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직접 내게로 오시나이까?**” 하니 **15** 절에 “**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.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본문 **10** 절에 “**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아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**”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본문의 내용을 **마태복음**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**마태복음 3** 장 **16** 절 이하에 “**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**”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“**모든 의를 이루는 것**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세례가 모든 인류의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인 것입니다.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**로마서 6** 장 **3** 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. “**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려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**”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예수님의 세례가 곧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약속된 사역이라는 것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식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

세례는 곧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**창세기 1** 장 **1** 절 이하에 “**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.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**

**보시기에 좋았더라”**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성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.

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

먼저, 세례는 **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에게 돌아 오는 것**입니다.

**1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** - 마태복음 3:2 절 “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”(마태복음 4:17 절)

**2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** - 요한계시록 2:5 절 “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”

**3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** – 누가복음 5:32 절 “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”

둘째, 세례는 **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**입니다

**1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** – 신명기 7:6 절 “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.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”

**2 복있는 사람입니다** – 시편 33:12 절 “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”

**3 구원받은 사람입니다** – 베드로전서 2:10 절 “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”

셋째, 세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**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**입니다

**1 성령으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** – 고린도전서 12:13 절 “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”

**2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** – 디모데후서 1:14 절 “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(복음)을 지키라”

**3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즉 성도가 되는 것**입니다 – 에베소서 1:13 절 “그(예수님)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(예수님)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”